

Multilingual Electronic Newsletter

多言語メールマガジン

かごしま南の風便り



Kagoshima Southern Wind Tidings

VOL.185

1 국제교류원 칼럼(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김효진)

고마워요, 가고시마

2 지사 관련 새소식

주트리니다드토바고 일본 대사가 방문하였습니다(12 월 22 일)

3 가고시마 국제교류

칭화대학교의 鄺 부장 및 관계자가 방문하여 MOU(포괄 협정) 3 기 갱신을 하였습니다(12 월 20 일)

4 가고시마 뉴스

제 41 회 이부스키 유채꽃 마라톤

●고마워요, 가고시마●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김효진(한국 출신)



가고시마에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벚꽃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거리에도 이미 봄기운이 완전한데요.

저는 5년 전 봄,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교류원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설레는 마음을 안고 처음으로 가고시마를 방문하였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온 봄 냄새, 기분 좋은 따뜻한 햇살, 거리에 늘어선 야자수

등 그날의 풍경이 아직까지도 선명히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요.

그러나 즐거운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일까요? 어느새 임기 만료가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고시마에서의 지난 5년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가고시마에 온 지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골든 위크를 맞이하였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는 딸이 걱정되었던 부모님은 골든 위크 중에 가고시마를 방문하였는데요. 그러나 가고시마에서의 생활이 아직 낯설었던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시영 전차를 잘못 타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고 있던 중 옆에 있던 중학생들이 친절하게 길을 알려 주어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학생들은 자세히 길을 알려 준 뒤에도 끝까지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봐 주었죠.



기내에서 바라본 가고시마공항

가고시마의 따뜻함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가끔 '그때 조금 길을 헤매긴 했지만, 우리에게겐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남아 있단다. 그날의 풍경과 사람들... 모든 것이 좋았지'라고 그날의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지난 5년 중에서 가장 긴장한 순간을 꼽는다면 단연코 2019년에 개최된 가고시마현 · 전라북도 교류 30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한국의 전라북도와 '우호 협력 추진에 관한 공동 선언'에 조인한 이래 30주년을 맞이하여 전라북도에서 개최된 기념 행사로, 저도 가고시마현의 일원으로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가고시마현의 일원으로 참석하게 된

기쁨, 감사의 마음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생각에 많이 긴장하기도 했죠. 저의 주된 업무는 일한 통역으로, 통역 경험이 전무했던 저는 '통역 경험도 없는 내가 요인의 통역이라니... 누가 좀 알려 주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잘해 내고야 만다'라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던 것은 냉혹한 현실이었죠. 전라북도지사 예방과 부지사 간 면담 등에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손은 떨리고 식은땀은 나고 못 들은 내용을 몇 번이나 확인하며 상대측 베테랑 통역에게 주눅이 드는 등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청 입구의 환영 메시지

그럼 5년차인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여전히 국제교류원의 업무 중에서 통역 업무를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비롯하여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닌 서로의 문화와 뉘앙스의 차이를 고려하여 통역해야 하며 그 후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까지... 매번 통역의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죠. 그러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가교가 되어 양국의 교류가 원활히 진행될 때면 국제교류원으로서의 최고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으므로 지금은 좋아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현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하는 출장 강좌와 이벤트 등에 참가하는 것 또한 국제교류원의 업무 중 하나인데요. 이 업무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현민 여러분을 만나 뵈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국제교류원으로서 처음으로 초등학교를 방문했던 때가 떠오르는데요. 그때까지 강사의 경험이 전무했던 저는 엄청난 긴장감을 느끼며 학교로 향했죠. 겨우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강당에 들어서니 200 명이 넘는 초등학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출장 강좌의 대상이 전교생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은 심경이었죠. 그러나 강좌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긴장감이 누그러지자 반짝이는 눈망울로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 아이들에게는 내가 처음 만나는 한국인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죠. 다행히도 첫 출장 강좌는 무사히 잘 마쳤는데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의 경험이 도움이 되어서 조금은 배짱이 좋아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가고시마 현민교류센터에서 현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한 한국 문화 소개 강좌를 진행하는데요. 이 강좌의 수강생들은 10년이 넘도록 오랫동안 참가하고 계신 분부터 최근에 한국 문화에 흥미를 느껴 새롭게 참가하신 분까지 연령도 계기도 다양하죠. 강좌 시간에는 한국의 연중행사를 비롯한 전통 문화와 먹거리, K-POP, 여행 정보, 최신 뉴스,

기초 한국어 등을 소개하는데요. 제 자신도 이 강좌를 통해서 보다 한국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더불어 일본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강좌에 임하는 저의 마음가짐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저 국제교류원의 업무 중 하나일 뿐이야'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새 둘도 없는 즐거움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수강생 여러분 덕분이죠. 수강생 여러분은 언제나 웃음 가득한 얼굴로 이야기를 걸어 주셨고, 한국에 대한 흥미를 보여 주셨으며, 재해가 일어나면 저의 안부를 걱정해 주시는 등 항상 따뜻하게 마음을 써 주셨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마음씨가 저의 마음가짐을 '더욱 의미 있는 강좌를 만들고 싶다. 더욱 이 시간을 소중히 하고 싶다'로 바꾼 것은 아닐까요?

끝으로 지난 5년간을 함께했던 가고시마현 국제교류과의 직원분들과 국제교류원 여러분, 그리고 가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직원분들,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배운 일에 대한 열정과 정중함, 그리고 외국인을 대하는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야쿠시마



기리시마 온천 마을의 풍경

가고시마는 사쿠라지마를 비롯한 풍요로운 자연의 혜택을 받은 곳입니다. 또한 와규 챔피언에 오른 가고시마흑우를 비롯하여 흑돼지, 해산물, 소주 등 맛있는 먹거리로 가득한 곳이죠. 그러나 저에게 있어 가고시마의 보물은 바로 '사람'입니다. 가고시마의 사람들은 조금 낮을 가리는 듯 보이지만, 실은 마음씨 따뜻하고 인정미가 넘치죠. 언젠가 가고시마를 떠올린다면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따뜻한 웃음을 띤 가고시마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가고시마 여러분, 지난 5년간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이곳에서의 좋은 추억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감사했습니다!

지사 관련 새소식

●주트리니다드토바고 일본 대사가 방문하였습니다(12 월 22 일)●

주트리니다드토바고 일본국 대사관의 마쓰바라 대사가 현청을 예방하였습니다.

마쓰바라 대사는 외국 청년 초치 사업(JET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재, 동국 출신의 ALT(외국어 지도 조수)가 본 현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과 내년도에도 동관 관할국으로 본 현이 초치를 요망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며,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렸던 당시 현내 6 개의 초(町)가 카리브 제국의 호스트 타운이 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JET 프로그램과 호스트 타운의 등록을 계기로 본 현과 카리브 제국의 인적, 경제적, 문화적인 상호 교류가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가고시마 국제교류

- 칭화대학교의 酈 부장 및 관계자가 방문하여 MOU(포괄 협정) 3기 갱신을 하였습니다 (12월 20일)●

가고시마현은 2013년 8월, 중국 베이징의 칭화대학교와 MOU(포괄 협정)를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청소년 및 학생, 학술, 경제 등의 각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이어 왔으며 금번 3기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체결에 즈음하여 칭화대학교 국제부의 酈金梁 부장을 비롯하여 대학 관계자 및 관계 기업 여러분이 가고시마현을 방문하여 MOU 갱신을 기념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사는 앞으로도 칭화대학교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촉진시켜 나가고 싶다고 전하였으며, 酈 부장은 가고시마현과의 MOU는 칭화대학교에 있어서 외국의 지방 정부와 처음으로 체결한 것으로 앞으로도 인재 육성, 예술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적인 교류를 이어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사쓰마 비파 연주와 가고시마의 식재료를 사용한 요리 등 '남쪽의 보물 상자 가고시마'를 만끽하였습니다.



MOU 갱신 피로



●제 41 회 이부스키 유채꽃 마라톤이 개최되었습니다(1 월 14 일)●



사진 제공: 가고시마현 난사쓰지역진흥국

지난 1 월 14 일, 제 41 회 이부스키 유채꽃 마라톤이 이부스키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내외 주자 약 7,500 명이 신춘의 이부스키로를 달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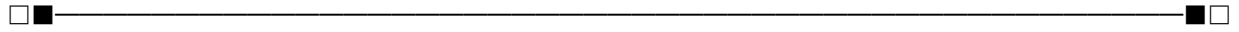
이부스키 유채꽃 마라톤은 1 년 중 가장 일찍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로, 시민들이 총출동하여 거리에서 응원하며 주자들에게 젠자이와 썬 고구마 등을 대접하는 것이 매력 만점인 대회입니다.

규슈 최대의 호수 '이케다 호수'와 사쓰마 후지로도 불리는 '가이문다케'를 바라보며 만개한 유채꽃 속을 달립니다. 고저 차가 있는 코스이지만, 제한 시간이 8 시간이라서 초보자들도 참가하기 쉬운 대회입니다. 달린 후에는 이부스키의 명물 '모래찜질 온천'에서 피로를 풀 수도 있어서 하루 만에 이부스키를 만끽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2024년에는 처음 시행되는 코스(인원 한정)로 유채꽃과 이케다 호수, 가이문다케의 풍경이 아름다운 이케다 호반을 피니시 지점으로 한 약 12km의 'fun running - 이케다 호수 코스 -'가 동시 개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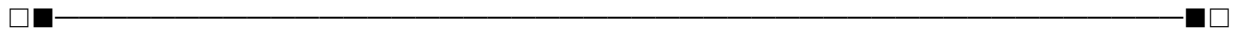


가고시마현청 홈페이지 <http://www.pref.kagoshima.jp/>



편집후기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곧 벚꽃이 만개하는 계절이 찾아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3 월은 만남과 헤어짐의 계절인 만큼 진학과 취직 등으로 인해 정들었던 장소와 사람들과의 헤어짐은
아쉽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활에 설레지는 않으신가요?
그럼, 다음 호도 기대해 주세요!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 게시판」에서는 가고시마에 관한 화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 및 게재합니다.

1. 가고시마 포토 갤러리

가고시마만의 매력이 담긴 사진이나 해외에서 발견한 가고시마의 사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더미처럼 쌓인 화산재 봉투)

2. 가고시마 생활의 지혜

가고시마의 생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예: 사쓰마아게를 맛있게 먹는 법, 화산재 대처법)

이 밖에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할 여러분의 다양한 정보를 기다립니다.

▲▽▲▽ 기사 제공 및 문의처 ▲▽▲▽

일본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 890-8577 가고시마시 가모이케 신마치 10-1

TEL: +81-99-286-2306

FAX: +81-99-286-5522

↓ 전자메일 주소

영 어 : cir1@pref.kagoshima.lg.jp

한국어 : cir3@pref.kagoshima.lg.jp

일본어 : minami@pref.kagoshima.lg.jp

본 기사의 저작권은 가고시마현에 있습니다. 무단게재와 불법복사를 금합니다.